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 평생학습의 미래와 가치의 변화를 위하여 -



김광식
 충청남도평생교육
 진흥원장

Dialogue in the Dark, 혁신의 평생학습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웅성거리는 소리들. 지팡이에 전해오는 바닥의 촉감이 손으로 느껴져 정신으로 전해진다. 지금 나는 그 여덟가에서 있는 것 같다. 거리에, 바다에, 극장에, 시장에, 불안과 긴장, 호기심. 곤두 선 감각이 내세 신호를 보낸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느닷없이 들이닥친 생경함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 시간이 한성되어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앞 사람의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Dialogue in the Dark(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5~6명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시각장애인의 가이드에 따라 암흑 속에서 70분 가까이 시각장애체험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거리를 견제 하는 것이 전부인 이 간단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은 전 세계 18개의 도시에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Dialogue in the Dark는 기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거리를 줄이며,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혁신적 사고에 기반 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평생학습은 10년간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다양한 개인의 취미나 여가 활용, 노동 시장의 불안, 국가주도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 등이 맞물려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승일로에 있고, 그에 걸맞은 다양한 성과들도 집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참여분야가 문화예술교육이나 직업능력교육으로 집중 또는 한정되면서 단순한 개인적 학습에서 머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 개인적 학습에서 사회적 참여 학습으로 실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해준다. 평생학습의 핵심은 성취와 변화이고,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며, 그 도구는 재미이다. 한글을 모르던 어르신들이 문해 교육을 통해 얻는 성취와 변화의 감동은 눈물겹다. 꼭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니 재미와 역정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재미와 열정이 따르니 행복한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 학습의 결과라면, 이제는 사회적 학습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학습이란 관계 속에서의 학습이다. 공동체를 형성해 나기는데 필요한 인물,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들, 협동을 통해 사회적망을 확산시키는 일들, 공공적 제도와 법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집단적 지성의 일들, 나아가 희망을 주는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일들을 통해 변화와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사회적 학습의 역할일 것이다.

이제, 평생학습에서도 혁신적 사고를 통한 창조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Dialogue in the Dark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자세의 변화와 함께 그들과의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일기리를 만들고 가치의 변화를 유도해낸다는 점이다. 혁신과 창조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공교육의 가치를 경쟁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재단하는 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협동과 다양성이 숨 쉴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공공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버리와 가슴을 온통 경쟁의 가치에 지배당한

많은 이들에게 갑자기 협동과 다양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물거에서 승냥을 찾는 일과 뭐가 다르겠는가? 가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 우선시해야 할 때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평생학습의 출발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평생학습에서 '참여'는 '스스로'라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이 단지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만의 영역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할 타인과 이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가 있다는 철학적 가치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평생학습은 상위난위에서 하위난위로 연계되는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국 지나친 성과수익에 집착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갈등과 배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주는 아래로부터(bottom-up)의 운영 방식이 적절하다.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파트너십은 사회적 학습동아리에 대한 발걸, 육성, 지원이다. 사회적 학습동아리는 주민주도형 평생학습의 실천적 교두보로서 평생학습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학습동아리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느닷없이 들이닥친 생경함'을 '안도하며 앞 사람의 흔적을 찾는' 평생학습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